



청년분과위원회 활동상황

- 낙농진흥회 항의방문 -

■ 양정화 낙농진흥회장, 낙농가 분열 행위 중단 약속



협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김태섭)는 2월 2일(목) 낙농진흥회를 항의방문하고, 낙농조합 총량제 운영지침 제정 및 월간낙농 생산자 편하기사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재차 전달하였다.

지난해 12월 일부지역 직결추진과정에서 제정된 낙농조합총량제 운영지침과 관련 청년분과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개질의 등 3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18일 위원회가 발송한 항의문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금일 진흥회를 항의방문하게 되었다.

이날 방문에서 청년분과위 대표들은 정부 방침

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진흥회가 나서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낙농혼란을 부추긴 점에 대해 항의와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으며, 더불어 지난해 월간낙농 12월호의 농가와 생산자단체를 편하한 기사에 대해 공개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낙농진흥회 양정화 회장은 진흥회가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낙농혼란을 부추긴 점에 대해 일정부분 진흥회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낙농대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떠한 농가분열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월간낙농 기사에 대해 당초 편집의도는 아니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한편 청년분과위원회는 항의방문 직후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청년분과위원회 주최로 집회까지 불사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기로 하였다. ☺